

# 장성 백양사 관광지구 명품화 추진...천만 관광시대 연다

### 비자나무숲 등 치유 콘텐츠...템플스테이·사찰음식 세계적 관심 군 정책자문위원회 열고 낙후된 상점·숙박 시설 개선 등 논의

장성군이 '천년고찰' 백양사 관광지구 명품화 추진에 나섰다.

장성군은 지난 14일 북하면 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백양사 관광지구 명품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선8기 장성군이 추진하는 정책에 전문적인 의견을 내고,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김한중 군수는 지난 3월 초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백양사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김한중 장성군수, 건설산업국장, 기획실장, 북하면장, 담당 팀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백양사 관광 발전에 대한 뜻을 모았다.

위원회 후에는 백양사를 찾아 현장토론회를 이어갔다.

장성 백양사는 천연기념물 고불매, 비자나무숲 등 다수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는 치유 관광 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백양사 템플스테이'와 청정 환경에서 재배한 먹거리로 만든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백양사 주변의 낙후된 상점과 숙박 시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군은 이번 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가 백양사 일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관광자원적 가치 극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연간 80만 명이 찾는 백양사를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육성해 '10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여는 초석으로 삼을 방침"이라며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를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14일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갖고 백양사 관광지구 명품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성군 제공)

## '상습 침수' 나주 영산·세지지구 배수개선사업 선정

### 281억원 전액 국비 확보 배수펌프장·저류지 등 조성

나주에서 상습적인 침수 피해를 겪었던 영산지구와 세지지구가 '2023년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3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지구에 영산지구를, 신규 착수 지구에 세지지구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영산지구는 124억원, 세지지구는 157억원의 사업비(국비)를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되면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펌프장과 저류지를 만들고 배수로를 정비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가 사업 시행을 맡고, 예산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기본조사지구인 영산지구는 저지대 상습침수 구역으로 꼽혀왔다. 배수로에 흙과 잡풀이 쌓여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다. 또 용수도가 오래돼서 농업용수 손실이 크고 비가 올 때 물이 잘 빠지지 않았다.

이번 사업으로 영산지구 154ha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용·배수로 7.1km 구간을 확장·정비할 계획이다.

신규착수지구인 세지지구는 그동안 만봉천 수위가 높아지면 하천이 역류하는 피해가 있었다. 269



나주 상습 침수지역에서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ha에 배수장 2곳, 배수문 1곳을 설치한다. 배수로 17.4km 구간을 확장·정비하고 0.65ha 면적에 흙을 덮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세지지구는 대규모 양질의 배 생산단지이지만 매년 우기에 침수 피해가

찾아 농업인들의 근심이 컸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장흥 랜드마크 '힐링테라피센터' 첫 삽

### 북카페·어린이놀이방·마을방송스튜디오 등 구성

장흥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장흥힐링테라피센터'가 신축을 위한 첫삽을 댔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북카페, 어린이놀이방, 동아리방, 마을방송스튜디오, 생약초 테라피실 등으로 구성된다.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되면 지역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장흥힐링테라피센터 신축은 장흥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 명칭에 대한 공모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장흥힐링테라피센터'로 명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순공사비 56억원이 소요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센터 건물은 장흥읍 702-1번지 일원(덕인주차장 부근 행복숲 부지)에 지상3층(연면적1499㎡)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신축 건물이 장흥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축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조경배치 등에 공을 들일 방침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 이용공간 등의 구성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기공식에 참석한 조석훈 장흥읍 부군수는 "준공까지 철저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사기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담양 에코산단, 중기 특별지원 2년 연장

담양 에코하이테크 산업단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년 간 추가 지정됐다. (사진)

에코하이테크 산단은 2018년에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최초 지정돼 5년간 유지됐으며, 이번 승인을 통해 앞으로 2년 간 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분석해 지역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자금 지원, 판로지원 등 특례를 지원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에코산단은 현장 실사와 심의를 거쳐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산단으로, 기업 자립 성장도의 안



정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아 추가 지원이 결정됐다.

이번 연장으로 입주기업들은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용 연구개발, 컨설팅,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5년만에...설레는 강진 '월출산 봄소풍'



22일 '사월의 달빛콘서트'가 열리는 달빛한옥마을.

### 군, 21~23일 강진다원 일원...3개분야 34가지 체험·놀이

월출산 자락 강진다원을 주 무대로 한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가 5년 만에 다시 열린다.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월출산 자락 강진다원 녹차밭 일원에서 진행된다.

축제 주 행사장은 월출산 계곡인 금릉경포대 앞 주차장에 마련된다.

이 축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열린 뒤 5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열린다.

월출산 자락에는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브랜드가 운영하는 10만평(33.3ha) 규모 녹차밭이 조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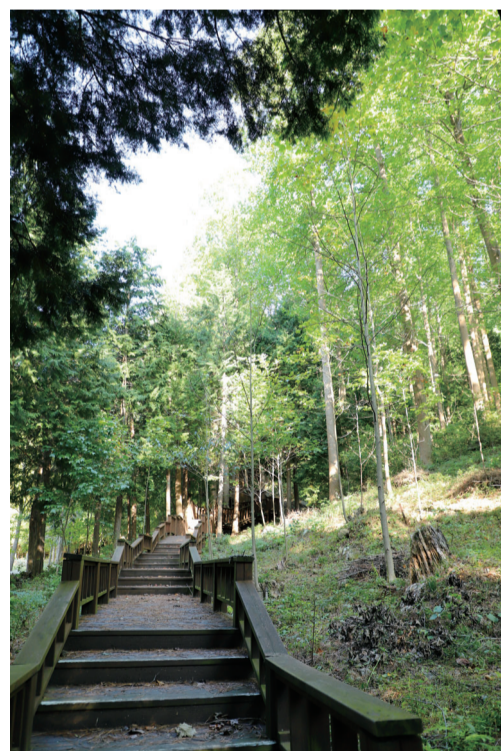
이번 축제에서는 3개 분야 34가지 체험·놀이를 즐길 수 있다.

22~23일에는 2만원에 간식과 돛자리를 제공하는 '어느 봄날의 브런치' 행사가 마련됐다. 22일 토요일 예약은 모두 찬 상태다.

행사 기간에는 백운동 원림에서 차 한 잔에 시 한 수를 읊는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 행사가 열린다.

백운동 원림은 담양 소재원, 완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으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강진군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걷는 '이가월기(이 야기가 가득한 월출산 기행)'가 진행된다. 약 1시간 정도 걸리며, 도장을 찍어오면 강진사랑상품권 5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월출산 정상인 천황봉을 사진 찍어오면 축제 운영 공간에서 강진사랑상품권을 선착순 100명에



오는 21~23일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가 열리는 성전면 월남사 인근 월남소류. (강진군 제공)

게 준다.

한옥 29채가 들어선 강진 달빛한옥마을에서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사월의 달빛콘서트'가 열린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화순 고인돌유적지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 고인돌축제 기간 22일 도곡 원네스스파리조트서

화순 고인돌유적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화순군은 '2023화순고인돌축제' 기간인 22일 도곡 원네스스파리조트에서 거석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유산과 축제의 만남: 지속가능한 보호, 관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화순군이 주최하고 국제민속축전기구회 한국지사(CIOFF)가 주관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영문 동북아시아석묘연구소

이사장과 파란 카푸씨오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등을 비롯해 국내외 인사 1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화순 고인돌의 세계유산 가치와 등재 의미 ▲지역자원과 결합한 지속 가능한 화순 고인돌 축제 ▲세계유산 화순 고인돌 축제의 전략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 유적지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담양군, 카카오톡으로 생활민원 접수

담양군이 절차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군민들과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으로 생활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와 담양군 누리집, 전화, 방문 등으로 생활민원 민원을 접수해왔으나,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늘리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카카오톡 채널 '담양군 민원톡'을 통해 현장의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카카오톡 가입 후 '담양군 민원톡'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 폐기물 등 일상 속 고작은 안전과 불편 사항을 쉽게 제보할 수 있다.

단순 질의나 일반 민원은 1~3일 내 답변하고, 다수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의 경우 5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계획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톡 활성화를 위해 민원 신고자에 대한 분기별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함평군,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21~28일 홈페이지·도자기 등 9개

함평군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읍면별 마을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강좌는 ▲홈패션 재봉(함평) ▲업사이클 팝아트(염다) ▲우쿨렐레(월야) ▲드로잉(손불) ▲자서전 써봄(해보) ▲생활도자기(대동) 등 9개 과정이다.

모집 인원은 강좌당 12명 이내로 총 108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강의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 유휴 공간을 활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함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구경제과 교육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